

조습전 리뷰

요사이 필자는 미술이나 영화 같은 시각생산물을 보면서 작업의 맥락을 파악할 때 들이대는 세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내러티브', '캐릭터', '스플래터' 이다. 이 세가지는 서로 연관되거나 반대의 의미가 있고, 앞선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성도 있어 보인다. 조습의 전시 서문에서 심광현은 그의 작업에서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고충환은 캐릭터의 등장을 어디선가 언급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조습의 작업을 접근할 때 꽤 용이한 방법으로 쓰인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파노라마처럼 길게 이어진 조습의 사진작업들이 불특정적인 과거의 사건, 사고를 상기시킨다. 그렇게 매체를 통해 공통의 기억으로 자리잡은 이미지들은 내러티브의 공감대를 이미 충분히 형성하고 있기네 빠른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내러티브는 그의 패러디 안에서 다시 균열한다. 그 틈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옥정호의 작업은 이순신, 류관순의 동상과 같은 모뉴멘탈을 둘러싼 우리의 무관심을 마술 쇼나 만화적 요소를 끌어들여 그 권위를 탈바꿈시킨다.

비합리적인 마술의 세계, 그것은 합리주의의 위장 막을 벗겨 내는 데 있어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들과 함께 선 작가는 환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우스운 '빠끼'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캐릭터들은 지역주의를 비판하는 듯도 하고, 앞으로 중요시될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미술' 이란 문제를 슬그머니 제시하는 듯도 하다. 그들의 작업에서 권력의 상징은 하나의 쇼로, 비극은 희극으로, 폭력은 코미디로, 역사는 연극으로 전이된다, 그것을 통해 통쾌함까지 느끼지만 무엇인가 찝찝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들의 레퍼토리가 뻘해서일까. 일반관객이 별로 없어서일까?

그들의 작업은 현실비판을 준열한 어조로 담아 내기보다는 대상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는다. 권력을 점령하기보다는 낙후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조습이 과거의 부조리함을 비꼬았다면, 옥정호는 현재 숨어 있거나 남아있는 부조리함을 공격한다. 그 둘은 서로 맞물려 있는 셈이다. 자신들의 전략을 서로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거 저항적인 작업을 해온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미련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 작가들에게서 대견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동시대 작가들은 가볍고, 덜 주관적이고, 신선한 그들의 작업을 보았을 것이다. 바람이 있다면 선배들의 자기 위안적인 격려를 받는데서 들이 안주하지 말고 벗어났으면 한다. 다시 말해 심미적인 세상을 향해가는 지금, 그들의 작업이 '아름답지 않은 예술, 혹은 저항하는 예술로써 이 시대에 여기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스스로 더 많이 고민하기를 바란다 .

다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새로운 미술을 바라는 마음에 그들이 충족된다면, 아직 그들은 모더니즘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작업은 결코 새로운 아방가르드의 후예로 읽히지 말아야 한다. 그것보다는 그들의 생각이 현재, 우리주변, 어느 패러다임 위에 놓여야 하는지를 풀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들의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웅적인 캐릭터보다는 양아치나 날라리, 아니면 '빠끼' 나 쇼맨십이 가득 찬 마술사이다 .

그 인물들은 이 시대를 나타내는 여타 이미지들과 어떤 '유사' 와 '차이' 가 있는지를 더 살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블러그나 미니홈피 등에서 보이는 패러디는 이시대 자기소비적인 경향이 강한 광활한 인터넷에서 이미 자리를 틀고 있는 데에 비해 그들의 작업은 아직 전시장미술의 패러다임 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들의 과다한 심미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비판적 전통의 뒷자락을 잡고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진정 아름다운 미술을 거부한다면, 제도미술 안에 있기보다는 이 시대 다른 시각매체와 광장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비제도권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저항적인 미술을 하는 후예들이 있다). 또한 필자는 저항적인 미술이라는 것이 우리 미술계 안에서 단절되었거나 너무 희미하다고 본다. 만약 그들이 제도권 안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남은 선택은 볼프강벨슈 (Wolfgang Welsch) 의 말처럼 ' 개인적인 시각보다는 사회적인 청각 ' 으로 그들의 작업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 눈요기 혹은 역겨움 ' 이란 양자택일에서 역겨움을 간직해야 한다. 왜냐면 그들의 선배 중에는 개인적인 시각을 담은 작업으로 인해 갤러리 사이에서 눈요 기 거리로 전락한 예를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자본주의 안에서 저항적인 미술이 가진 언어 중 하나는 그것에 흡수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역겨움' 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작업에서는 아직 기존 맥락을 끊고 그것을 넘어서는 강한 스피레터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그러한 선배의 맥락을 잇는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동시대 여타 인터넷 이미지들과 변별 점을 가지려면 비판과 더불어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선배들은 편협한 사고로 인해 이 시대모든 패러다임을 넘나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젊은 작가들이 대견하게 보이는 것 이다.

윤제 (미술비평)

월간미술 2005 년 6 월호 133p